

4대 기독교 가족의 신앙 역사의 영적-가계도 분석을 통한 질적 사례연구

김 지 혜* 홍 경 화** 김 명 신***

국문초록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4대째 이어온 기독교 가족에 대해 영적-가계도 질문을 활용하여 신앙의 세대 전수 과정을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수도권에 거주하는 4대 기독교 두 가족을 참여자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대 기독교 가족은 신앙이 가족에 중심이고, 둘째, 부모의 신앙적 패턴이 세대 간 전수되며, 셋째, 4세대 자녀들의 신앙적 방향이 상대적으로 짧고 신앙 회복 후 더욱 신앙심이 깊어졌다. 넷째, 성경적인 가족의 질서대로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었고, 다섯째, 3세대 부모들의 4세대 자녀들에 대한 존중적 태도가 4세대들의 자발적인 신앙 선택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었으며, 여섯째 가족관계가 신앙 세대 전수에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참여 가족들의 인간적인 특징들이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일반 가계도와 영적-가계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독특하고 복잡한 4대 기독교 가족의 사례를 연구한 점과 4대 기독교 가족들에게 질적 사례연구의 심층 면접을 통해 생생한 신앙의 세대 전수 과정의 자료를 얻었다는 점, 영적-가계도 질문을 제작하여 활용했다는 점, 마지막으로 일반 상담기법인 가계도를 확장하여 기독교 상담에서 적용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주제어: 4대 기독교 가족, 신앙의 세대전수, 사례연구, 영적-가계도, 기독교 상담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전공 박사과정, 제1저자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학과 교수, 참여저자

*** 햇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 기독교상담전공 박사과정, 교신저자

I. 여는 글

성경에는 족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의 아담의 족보는 인간이 죄로 인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선택한 가계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준다. 역대상도 아담의 족보에서부터 시작되며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목적에 있었음을 상기시켜 주고 인도하심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성경은 첫 번째 인류인 아담에서부터 시작해 노아, 아브라함, 다윗,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가계와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뤄나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성경의 족보를 통해 인간 가족이 죄악에 빠져 하나님께 멀어졌다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하나님께 나아오게 되는 죄로부터 회복되는 과정을 볼 수 있다.

한국 기독교 역사 116년이던 지난 2001년도에 한국은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가장 많이 파송할 정도로 기독교가 성장한 나라였으나 2005년도를 기점으로 개신교의 인구수는 감소하고 있다(박광영, 2013; 심재임, 2013). 박광영(2013)은 특히 젊은 세대, 29세 이하에서 그 감소율이 높다고 하였고 이는 2018년 예장통합교단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지난 10년간 30~40% 감소했다는 목회데이터연구소(2019)의 주간리포트 내용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종국(2021)은 한국 교회학교의 위기에 대해 말하며 위기 요인으로 출산율 감소로 인한 자연 감소보다는 부모가 더 큰 요인으로 보았다. 2019년도 예배사역연구소의 “다음세대 신앙 전수”라는 주제로 개최된 포럼에서도 한국의 다음 세대의 신앙 이탈과 위기를 언급하며 다음 세대의 신앙의 문제는 더 이상 교회만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가 풀어가야 한다고 하였다(예배사역연구소, 2019). 여러 기독교 언론매체에서도 코로나 19가 가정의 신앙교육의 부재를 드러냄과 동시에 중요성을 일깨워준 기회라며 자녀들의 신앙 성장과 전수의 책임에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사를 보도하였다(국민일보, 2021. 05. 24; 기독교일보, 2020. 06. 22; 데일리굿뉴스, 2021. 02. 26).

이처럼 한국의 기독교인 숫자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 신앙을 계속해서 이어온 가족이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고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은 무엇인지를 알아봄으로써 가족의 신앙 전수에 도움을 주는 것은 중요하다. 본 연구는 Frame(2000)과 Hodge(2001)의 영적-가계도 질문을 활용하여 4대 기독교 가족의 신앙 전수 과정 및 신앙 전수의 어려움을 질적 사례연구 방법으로 연구하였다.

II. 떠는 글

1. 기독교 가족의 정의와 목적

성경에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도”(창 1:26, 2:24)라고 하였다. 기독교 가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에 따라 직접 창조한 인류 최초의 관계 시작으로 달리 표현하면 기독교 가족은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낼 수 있는 관계이다(Yarhouse & Sell, 2017). 하나님께서 인간을 가족 안에 둔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목적으로써 남자와 여자가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고 양육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는 뜻이 있다(창 15:18, 17:1-7).

기독교 가족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른 기관인바 분명히 지향해야 할 목적이 있다. 기독교 가족의 목적을 아는 것은 기독교 가족에게 나아가야 할 방향과 가족의 정체성, 어떠한 기능(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하며 더 나아가 현재 우리 가족의 문제를 점검하고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게 할 것이다. 정정숙(1994)은 기독교 가정의 목적을 네 가지로 언급하였다. 첫째, 기독교 가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는 가정으로 여기에 기독교 가정의 고귀함이 있다고 한다. 둘째, 신앙의 훈련장으로서 가족은 신앙으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종족 보존의 의무가 있으며 육체적인 종족 보존의 의무를 넘는 영적 의미에서 종족 보존, 즉 신앙의 세대 전수의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가정은 문화 사명을 담당해야 하며 세계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일 수 있도록 세계를 섬겨야 한다는 것이다. 박광영(2013)은 가정에서 3세대가 자주 만나 삶을 나누며 3세대 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신앙 전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마틴 로이드 존스의 부모가 ‘아이를 돕는 7가지 행동’을 근거로 들며 부모가 자녀들의 말을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소통함으로써 부모와 자녀 간의 신앙 전수가 수월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처럼 기독교 가족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의 목적이 있고 가족 안에서 신앙적으로 훈련되어 신앙의 세대 전수를 이룸으로써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야 한다. 따라서 가족의 신앙 전수 과정과 방법을 살펴보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초석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독교 가족의 영적-가계도 작업을 통해 가족의 신앙 역사를 살펴보았다.

2. 일반 가계도와 영적 가계도

가계도는 포괄적, 객관적, 체계적으로 가족의 삶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게 하는 가족평가도구이자 치료기법이다(McGoldrick & Gerson, 1997). 가계도는 여러 세대에 걸쳐 반복되는 가족 패턴과 그 패턴이 어떤 식으로 한 세대에 영향을 미쳐 다음 세대로 전수되는지 그 흐름을 인식할 수 있게 함으로 역기능적 가족관계를 만드는 패턴을 반복하지 않도록 돕는다(McGoldrick, Gerson, & Petry, 2011). 보웬의 이론에서는 인간과 가족을 생물학적이고 환경에 적응하는 심리·사회적 존재로 보며 인간의 영적인 부분, 신과 인간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한 기독교 상담에서 인간은 절대자 하나님의 영적인 면을 가지고 창조된 심리·사회·영적 존재이다(김용태, 2019a; 2019b). 이에 일반 가계도를 활용하여 기독교 가족의 신앙의 세대 전수 과정을 살펴보는 데는 제약이 따르며 영적인 부분이 중심이 된 방법적인 확장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영분과 김유숙이 McGoldrick과 Gerson(1997)이 쓴 'Genograms in Family Assessment'를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이후 가계도 관련 도서와 가계도를 활용한 연구가 꾸준히 출판 및 발행되고 있다(강혜성 역, 2017; McGoldrick, Gerson, & Petry, 2011; Rita, Gerald, & Markie, 2019). 홍지윤(2003)과 김미애와 김영호(2009)는 가계도를 활용한 연구에서 부부의 원가족과의 분화를 통해 현재 가족의 긍정적인 변화를 보고하였다. 이남옥, 문용갑과 김지혜(2016)는 가계도 분석과 가족 세우기의 상담기법을 통해 우울증 여성 내담자의 부모로부터의 독립과 우울증 회복의 치료 효과를 제시하였고 손영란과 이윤주(2020)는 가계도를 활용해 여대생의 자아 분화수준을 향상시킨 사례를 생애사 연구방법으로 분석하여 결과를 제시하였다.

보웬의 가계도를 목회상담에 적용한 연구에서는 기독교인 가족의 역사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세대에 걸친 영적인 흐름을 파악하는 것의 중요성과 이를 통해 가족의 신앙의 초심을 회복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김영덕, 2005). 이다미(2013)는 아브라함의 4대 가족 안에 장자권으로 인한 불안과 갈등이 전수되지만 분화와 믿음의 성숙으로 전수된 불안과 갈등의 패턴이 변화함을 설명하였다. 김영근(2011)은 보웬의 가족치료 기법 중에 자기분화, 탈삼각화, 가계도를 기독교적 관점으로 분석해 보았으나 상담 장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못했다. 장희성(2013)은 야콥의 축복을 해석하며 인간관계 중심의 가계도 분석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에 기초한 가계도 분석을 통해 삶을 신앙적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의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기독교인에게 일반 가계도를 활용하는데 제약이 있음을 언급하며 기독교 관점으로 해석된 가계도 분석이 필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박정희와 동료들(2007)은 2000~2005년에 가족치료 관련 국내의 주요 학술지들에 나타난 가족치료 연구들의 주제별 경향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 '영적 가계도(spiritual genogram)'를 소개하였고 가족치료에서도 종교와 영성을 다루는 연구들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영적-가계도(spiritual genogram)는 Frame(2000)에 의해 공식적으로 사용된 용어이다.

영적-가계도는 내담자의 가족의 영성적, 종교적 강점들을 나타내고 세대 역동들이 현재의 영적인 기능들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표현하는 평가 방법이다. 영적 가계도는 개인이나 가족이 그들의 종교와 영적 전통, 관습, 믿음, 그리고 경험에 대한 세대 간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게 한다. 가족치료에서 영적-가계도의 활용은 가족의 종교적/영적 유산을 이해하고 이러한 유산이 현재 부부나 가족의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있다. 또한 영적 가계도는 최근의 신앙과 생활 속에서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종교적/영적 유산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다(Frame, 2000).

권수영(2010)은 영적-가계도가 개인과 가족의 현재의 문제를 일으킨 '실제적 원인'과 '심리내적인 원인'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원인에까지 작용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보여 줄 수 있는 기독교 상담의 임상 도구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가족의 영적 자원을 발견하기 위해 영적으로 초점 맞춰진 가계도 활용에 관한 연구(Dunn & Dawes, 1999)와 상담자 교육 과정에 영적-가계도 활용의 유용성에 관해 언급한 연구(Willow, Tobin, & Toner, 2009)가 보고되고, Frame(2000)와 Hodge(2001)의 영적-가계도 질문을 제시하며 가족치료에서 영적-가계도 사용의 필요성을 주장한 연구(Yahya, 2017)도 보고되고 있으나 영적-가계도를 활용한 신앙의 세대 전수 과정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사례연구의 목적은 기독교 신앙을 4대째 이어온 가족의 신앙의 세대 전수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다. 특별히 본 연구는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의 영적인 흐름에 대한 탐색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기존의 소개된 영적-가계도(Frame, 2000; Hodge, 2001) 질문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참여 가족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둘째, 연구 참여 가족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세대 전수를 해 오고 있는가? 셋째, 연구 참여 가족에게 신앙의 전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가족들이 어떠한 과정을 통해 신앙을 이어올 수 있었는지를 영적-가계도 질문을 통해 알아보고자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다. 사례연구는 주요한 맥락 안에서 사례가 전개되는 방식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사례의 독특성과 복잡성을 연구하는 것이다(Stake, 2000). 본 연구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두 가족의 신앙 역사에 대한 사례 분석을 통해 기독교 가족이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오고 있는지를 풍부하고 깊이 있는 맥락적 자료를 통해 연구하였다.

1) 영적-가계도 질문 제작

본 연구에서는 인간은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영적 특성이 있고, 가족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존재의 목적이 있음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관점으로 영적-가계도 질문을 수정 및 보완하여 일반 가계도 기법에 적용하였다. 성경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구속사적 내용이 핵심이며 성경 속 가족의 이야기 역시 구속사적 관점으로 기술되어 있다. 이에 현대 가족의 신앙 이야기를 알아보기 위한 영적-가계도 질문을 구속사 관점에 따라 제작하였다. 구속사 관점에 따른 영적-가계도 질문은 가족의 신앙 전수 과정에서의 신앙 전수의 위기, 가족의 죄의 요소 및 전수, 죄의 해결과 구원에 이르기까지 가족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다. 구속사 과정을 지칭하는 '창조-타락-구원-성화'의 용어를 가족들에게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시작-위기-회복-지속'의 용어로 바꿔 사용하였다.

Frame(2000)은 개인(6문항)과 원가족(5문항)의 종교적/영적인 부분을 나눠 11문항의 영적-가계도 질문을 만들었고 Hodge(2001)는 영적-가계도에 대한 기본적인 탐색 질문 5문항과 개인 및 가족의 문제와 종교적/영적인 부분과의 관련성에 관한 개입 질문 5문항으로 영적-가계도 질문을 만들었다. 권수영(2010)은 Frame의 영적-가계도 질문을, 김승돈과 김용환(2015)은 Frame(2000)과 Hodge(2001)의 영적-가계도 질문을 번안하여 자신들의 논문에 기재하였다. Frame(2000)과 Hodge(2001)의 영적-가계도 질문들은 개인에게 가족의 종교적/영적인 것에 관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족이 종교/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가족에게 미치는 종교의 영향에 대해 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Frame(2000)의 영적-가계도 질문들에서 4문항, Hodge(2001)의 질문들에서 6문항을 가져와 연구목적에 맞게 표현을 수정하고 '신앙 전수 과정'과 관련한 4문항을 추가하였다. 예비 연구를 통하여 질문을 다시 수정하고 기독교 상담학

과 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영적-가계도 질문은 영적-가계도 참여 경험과 관련된 2 문항을 포함해 16문항으로 최종 확정하였고, 질문의 순서는 신앙의 시작기-위기기-회복기-지속기 순으로 하였다(표 1 참조).

〈표 1〉 영적-가계도 질문 목록

영적-가계도 질문 (16문항)	
시작기	1. 가족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2. 가족은 어떻게 신앙을 갖게 되었나요? *
	3. 당신의 조부모님(1, 2세대 포함)의 신앙은 어떠했나요? 가족의 신앙의 발자취에 조부모님들의 신앙은 어떠한 역할을 했나요?
	4. 가족 중에서 영적 가장은 누구인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5. 당신이 어렸을 때 신앙은 당신의 삶에 어떠한 역할을 했나요?
위기기	6. 현재 가족의 신앙 상태는 어떤가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7. 가족의 (문제나) 어려움이 신앙(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
회복기	8. (신앙과 멀어졌다면) 신앙을 어떻게 회복했나요?
	9. 가족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신앙은 어떤 역할을 했나요?
	10. 가족에게 중요한 신앙적 체험이 있었나요? 그 신앙적 체험은 가족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쳤나요?
지속기	11. 현재 하나님은 당신의 가족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요? *
	12. 가족이 신앙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가요?
	13. 하나님은 당신 가족을 통해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계신가요?
	14. 무엇이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신앙을 전수할 수 있게 했나요? *
참여	15.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가족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
소감	16. 가족은 영적-가계도 작업을 통해 어떠한 경험을 하였나요?

* 표시는 추가 문항

2) 연구 참여자

사례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사례 선정에 있다. 사례는 주변 환경이나 맥락과 확연히 구별되는 경계를 가진 하나의 독립체이고, 어떠한 목적에 따라 활동과 기능을 하는 체계적 특성을 가지며, 구체적인 실체가 있어야 한다. 본 연구의 사례는 '기독교 가족'이라는 경계와 구체성을 가지고 가족의 신앙의 세대 전수 활동을 보았다. 또한 사례는 여러 맥락,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매우 복잡해야 하는바(이원석, 2020) 본 연구에서는 일반 기독교 가족이 아닌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이어온 가족'이라는 사례를 통해 긴 세월 동안 다양한 요인과 환경의 영향에서도 어떻게 신앙의 여정을 밟고 전수했는지를 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 참여 가족의 실제적인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4대 기독교

교 가족에서 3세대 부모와 4세대 성인 자녀, 둘째, 3세대 부모의 연령은 만 50~69세 이고, 4세대 성인 자녀의 연령은 만 20세 이상이다. 연령에 제한을 둔 것은 자신들의 생각을 정리해서 명확하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참여자를 선정하기 위해서였다. 셋째, 3세대 부모 중 한 부모라도 원가족이 4대 기독교 가족이면 되고, 넷째, 가족의 신앙 전수 역사를 회고해 보기 원하는 가족을 선정하였다(표 2 참조). 연구 참여자 선정 과정은 T 신학교와 O 교회에 안내문 부착과 기독교 상담학과 석·박사생들의 지인 추천방식을 통해 연구에 자발적인 참여를 원하는 가족을 1차 대상으로 하였다. 1차 대상 가족들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연구 참여 선정자 기준 조건을 확인하고 연구에 적합한 대상을 선별하였다.

〈표 2〉 연구 참여자 배경정보

참여 가족	관계	나이	신앙 연수	교회 직분	섬김 활동	직업
참여 가족 1	부	50대 후반	약 10년	성도	없음	무직
	모	50대 중반	약 50년	집사	없음	주부
	자녀	30대 초반	모태신앙	청년	청년부	강사
	자녀	20대 초반	모태신앙	청년	청년부	학생
참여 가족 2	부	50대 중반	약 40년	목회자	목회자	목사
	모	50대 초반	모태신앙	사모	사모	주부
	자녀	20대 중반	모태신앙	없음	없음	연주자
	자녀	20대 중반	모태신앙	청년	청년부	무직
	자녀	20대 중반	모태신앙	청년	청년부	회사원

연구 참여 가족1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4인 가족으로 모두 동거 중이다. 부계가 4대째 신앙을 이어왔으며, 가족의 동의하에 부모와 큰딸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3세대 부의 외조모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었고 3세대 부의 모는 교회에서 상처받아 신앙을 중단한 남편과 살면서 신앙과 멀어졌다. 3세대 부의 부는 자녀들이 학생으로 공부에 소홀히 해 신앙생활을 반대했다. 그러나 외가 친척들의 도움으로 3세대 부를 제외한 형제들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3세대 모는 원가족에서 신앙 1세대였으나 신앙을 단절한 3세대 부와 결혼하고 시부의 반대도 있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후 3세대 부의 부가 손자의 건강을 위해 가족 모두의 교회 출석을 선언하고 가족들은 이를 따랐다.

연구 참여 가족2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5인 가족으로 현재는 4인이 동거하고 있다. 3세대 모계로 4대째 신앙이 전수되었고 타지에 거주하는 아들을 제외한 부모와 두 딸

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3세대 모의 친조모로부터 신앙이 시작되었으나 아들의 죽음으로 중단한 적이 있다. 3세대 모의 부는 교회 가까이 살게 되면서 다시 교회 출석을 하였고 3세대 모는 모태신앙으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에 충실하였다. 3세대 부는 원가족의 신앙 1세대이며 신앙체험 후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다. 3세대 부모는 지인의 기도로 만나 결혼했고 3남매를 두었다. 현재 혼자 사는 아들이 교회 정착을 못 하고 있어 가족들은 그의 신앙생활을 걱정하고 있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는 4대째 기독교 신앙을 전수해 온 가족들과 심층 면접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2022년 10월 둘째 주에 4대 기독교 목회자 가정을 예비 연구하고 이 면접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윤곽을 잡고 영적-가계도 질문을 참여자들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본격적인 연구는 10월 셋째 주와 넷째 주에 한 주에 한 가족씩 면담을 진행하였다. 면접 날짜와 장소는 연구 참여 가족과 상의하여 정하였다. 연구 참여 가족1은 가족들이 원하여 연구자 중 한 연구자가 운영하는 상담센터에서 면접을 진행하였고 연구 참여 가족2는 3세대 부가 사역하는 교회에서 진행하였다. 면접 시간은 각각 3시간 반가량 소요되었다. 면접 전 연구윤리와 연구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고 가족들이 이를 숙지하였는지 확인한 후 연구 참여 가족과 연구자들이 함께 연구 동의서에 서명하였다. 면접이 끝난 후에는 면접에 응해 준 보답으로 연구 참여 가족에게 5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였다. 연구가 끝난 시점에 가족에게 연구 결과를 해석해 주었다.

4) 자료 분석 방법

본 연구의 분석은 Stake(2000: 118)의 범주 합산 방식을 사용하였고 이는 “여러 가지의 경우가 어떤 하나의 종류라고 얘기될 수 있을 때까지 경우들을 모으는 방식이다”. 연구자들은 서로 비슷하거나 어울리는 내용들을 가진 단위들을 직관적으로 판단하여 묶어서 범주화하였다.

먼저 녹음된 면접 내용을 참여 가족이 표현한 그대로 전사하여 축어록을 작성하였다. 전사된 자료를 반복하여 읽으며 자료가 의미하는 부분이 잘 드러나는 문장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세그멘팅(segmenting)하였다. 전사한 자료와 세그멘팅한 자료를 다시 듣고 읽기를 반복하면서 원자료를 요약하였다. 다음으로 요약된 원자료에서 반복되는 내용들을 의미 단위로 분류하였고 이 과정에서 의문이 생기거나 떠오르는 생각을 기

록하여 추가 질문 문항들을 만들고 참여자 가족에게 추가 면접을 하였다. 의미 단위로 분류한 후에는 다시 그 의미 단위들을 읽으면서 공통된 주제들을 추출하고 이를 묶어 하위범주들을 명명하였다. 같은 방식으로 유사한 하위범주들을 묶어 범주들을 명명하였다. 사례 간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 참여 가족들의 원자료를 의미 단위, 하위범주, 범주로 나눈 분석표를 토대로 분석 주제를 추출하여 표로 만든 후 서로 비교하였다. 본 연구분석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사례 범주표가 완성될 때까지 함께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의견이 다를 경우 연구 참여 가족에게 직접 문의하여 의견을 조율하였다.

본 연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의 삼각측정을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은 심층 면접 중에 기록한 현장 노트, 자료 분석과정에서의 연구자들의 메모, 참여 가족을 연구에 추천한 추천인의 면담 등을 수집하여 분석 시 참고하였다. 연구를 수행하는 전 과정 동안 질적 연구방법론 수업에서 교수의 지도를 받았고 수업을 듣는 박사 과정생들의 검토를 받았다. 다각적으로 모인 자료 간에 불일치가 있는 경우 연구 참여 가족의 심층 면접 당시의 현재에서 나온 자료를 우선으로 하였다.

5. 연구 결과

1) 사례 내 분석 결과

본 연구는 참여 가족들의 4대 기독교 가족이라는 독특한 삶에 대해 제작한 영적-가계도 질문들로 이들이 신앙에서 어떠한 경험을 하는지 맥락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사례 내 분석에서는 4대 기독교 가족인 두 가족의 사례들을 각각 하나의 단일 사례로 취급하여 분석하였다. 사례 간 분석에서는 각 참여 가족들의 유사점과 가족의 맥락에서 찾아볼 수 있는 차이점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첫 번째 연구 참여 가족

첫 번째 연구 주제인 '가족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면접 자료를 분석한 결과 8개의 의미 단위, 6개의 하위범주, 4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 주제인 '가족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세대 전수를 해 오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44개의 의미 단위, 20개의 하위범주, 9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 연구 주제인 '가족에게 신앙의 전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10개의 의미 단위, 5개의 하위범주, 3개의 범주로 나왔다(표 3 참조).

〈표 3〉 첫 번째 연구 참여 가족의 범주화 결과

가족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의미 단위	하위범주	범주
가족의 문제해결이나 의견을 모아주는 공통된 기준	가족을 하나 되게 하는 것	연합
가족의 하나의 주제거리이자 공통 관심사		
가족이 모이고 대화하고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		
말씀을 통해 때에 따라 가르쳐 주시는 것	때에 맞는 가르침	좋은 가르침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	좋은 영향	
신앙은 가족에게 녹아 있는 하나의 삶	가족에게 녹아든 삶	가족의 삶 자체
가족에게 신앙이란 걸어야 하는 길	가족 걸어야 할 길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돌아갈 곳이고 평안을 주는 것	베이스캠프	안식처
가족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세대 전수를 해 오고 있는가?		
3세대 부의 친조모는 세든 아가씨의 부에게 전도됨	신앙 시작 계기	신앙 결단
남편의 부재로 의지의 대상이 필요		
3세대 부의 부가 외손자의 불치병을 낫게 하기 위해 가족 전원 교회 출석 선포 및 제사 없앴		
자녀의 교회 활동을 막지 않겠다는 회개와 하나님께서 자녀를 필요로 하시면 뜻에 따르겠다는 결단	자녀를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회개와 결단	
한국 교회의 부흥기로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심도 뜨거워 함께 어울리며 신앙생활	한국 기독교 부흥기로 교회가 성령으로 뜨거움	시대적 배경
청년부의 환대로 더욱 신앙 회복 및 성장	믿는 자의 도움	교회의 도움
5살 때 동네 교회 전도사의 전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게 무섭고 가족 전도를 지상목표로 생각해 전도사님과 친구들 도움으로 전도		
어려서부터의 교회 생활은 신앙의 위기 극복과 돌아올 수 있게 한 힘	어린 시절 교회 생활	
3세대 모는 친조모가 교회 데려다줘서 교회 나감	친조모의 도움	가족의 도움
딸의 신앙 회복을 위한 3세대 모의 눈물의 중보기도	부모의 기도	
조부모님들의 기도가 가족이 신앙을 이어 가게 함		
믿지 않은 가족이 마음이 돌아설 때까지 기다림	가족 구성원이 신앙을 받아들일 때까지 기다림	
가족 중 누군가는 계속 신앙의 끈을 잡고 다른 가족들에게 연결해 주면서 믿을 수 있도록 기다려 줌		
수련회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은 4세대 딸의 신앙회복	직접적 신앙체험	신앙 체험
방언 은사		
새벽 예배 방해하는 귀신 뱀으로써 천국과 지옥 확신		
가족 구성원의 불치병의 회복 과정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사랑 가족에게 전해 주고 싶음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 사랑 전하고픈 마음	
딸의 신앙의 위기와 회복 과정에서 하나님 사랑을 절실히 느끼고 가족에게 신앙 전수 다짐		

가족이 혼란스런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갈 것인지 유심히 지켜 보심	하나님의 계획과 지켜보심으로 가족 인도 중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바라보고 이끌고 계심		
가족의 노력으로 현장 예배 복귀에 선택의 여지 주심		
3세대 부의 외조모가 성경 읽기를 위해 한글 배움	적극적인 신앙생활	순전한 믿음 생활
3세대 부의 외조모가 집 옥상을 천막 교회로 내어 줌		
3세대 부의 외가댁의 신앙적 분위기와 사역자 배출		
3세대 부의 부의 신앙 결단 후 성실한 신앙생활	성실한 신앙생활	
3세대 부모의 모들의 기도와 교회활동 열정적		
3세대 모의 친조모는 문맹으로 성경 읽기는 못했으나 찬송가 즐겨 부르고 주일 성수하며 천국 소망		
인간적 지식과 신앙간의 진지한 고민	순전한 그리스도인 소망	
온라인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복장과 자세를 갖춰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는 진심의 예배 드림		
때 되면 세례를 받는 형식적 세례 거부		
신앙에 대한 진실된 마음 소원		
가족이 코로나로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더 친밀해지고 신앙적 교제도 늘어남	함께 예배드림, 말씀 교제로 친밀	가족을 통한 영적 가족 관계 경험
4세대 딸은 모와 신앙 교제로 모 통해 하나님 느낌	부모 통해 하나님 이미지 형성	
부의 가정적인 모습 통해 사랑의 하나님 이미지 형성	가족을 통해 말씀대로 사는 삶 알게 됨	
개인적으로 넘어지지만 가족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뭔지 보여 줌		
말씀이 가족의 가치관으로 자리 잡아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조부모 공경	같등을 조절하며 사는 가족 중심 감사	
부딪히고 버거덕거리며 맞춰 나가는 내가 원하는 가족을 주심에 감사		
2, 3세대 부들의 일에는 엄격, 가족에게 충실, 따뜻	가족이 똘똘 뭉침	가족 우선
3세대 부의 부가 형제들 간에 중간 위치로 이복 및 동복형제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가족을 살리기 위해 가족 전원 교회 출석 결단		
3세대 부가 이혼한 처남의 자녀들까지 챙기고 장인의 추도예배 인도		
3세대 부모의 2세대와 4세대 갈등 중재하며 이해		
가족에게 신앙의 전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시부의 말을 거스르지 못해 신앙 중단	부모의 말을 따름	신앙보다 우선인 가족
유교적인 시대상으로 어른의 말씀에 순종		
시부의 믿는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마음을 이해해 시부의 신앙 반대에 맞서지 않음		
3세대 부는 부모의 뜻에 따라 교회 나가지 않음		

3세대 모의 혼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외로움과 이방인 같은 느낌이 들어 현장 예배 복귀 못 함	관계 의존	친밀감 중시
남편이 회사 일로 힘들어 신앙생활 적극적으로 권유못함		
3세대 부는 교회가 물리적으로 가까웠으나 심정적으로는 푸근하지 않아 적응하지 못함	교회에서 친밀감 느끼지 못해 교회와 멀어짐	
4세대 딸의 중고등부 모임에서 친밀감 못 느낌		
2세대 부와 3세대 부의 자녀들의 학업 소홀에 대한 걱정으로 지나친 교회 활동 반대	믿지 않는 부모의 학생 본분 중시, 과한 교회활동 반대	세상의 가치관 우선시
4세대 딸은 기도하고 실망하기를 반복하다 성적이 크게 하락한 후 '나의 하나님은 없다'라며 신앙 낙심	성적하락으로 하나님 원망	

(1) 가족에게 신앙이란

영적-가계도 질문의 시작과 끝에 ‘가족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나요’에 대해 질문을 반복하였다. 처음 질문에서는 평상시에 가족들이 신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의도였고 마지막에 같은 질문을 반복한 것은 가족의 신앙 역사를 살펴본 후에 가족 구성원들에게 신앙이 어떻게 정리됐는지를 알아보고자 하는 이유에서였다.

3세대 부는 가족에게 신앙은 하나의 주제 거리이고 공통된 관심사로 가족이 같이 모여 대화하는 하나의 가족이 되게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아내와 딸의 신앙생활 하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것 같다고 하였다. 3세대 모는 가족에게 신앙은 걸어가야 할 길이라고 하고 4세대 딸은 가족들 각자가 생각이 다르나 가족의 문제해결이나 의견을 모아주는 공통된 기준이라고 하였다. 연구 마지막에 같은 질문에 대해서 3세대 부는 신앙은 ‘가족에게 녹아 있는 하나의 삶’이라고 하였고 4세대 딸은 신앙은 세상에서 힘들다가도 돌아갈 곳이고 평안을 주는 ‘베이스캠프’라고 하였다.

(2) 가족의 신앙 유지와 전수 방법

두 번째 연구 문제인 ‘가족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세대 전수를 해 오고 있는가’에 대해 신앙 결단, 시대 배경, 교회 도움, 가족 도움, 신앙체험, 하나님의 기다림, 순전한 믿음 생활, 가족을 통한 영적 가족관계 경험, 가족 우선으로 범주가 나왔다.

① 신앙 결단

3세대 부계의 신앙 시작은 외조모부터이다. 외조모가 1.4 후퇴 때 서울로 피난을 와 집을 장만해서 세를 졌는데 집에 세든 아가씨의 아버지가 믿는 사람이었고 그분의 전도로 신앙을 갖게 됐다. 외조부가 외도하고 가족을 챙기지 않아 외조모가 8남매를

혼자 키워야 했고 이에 의지의 대상이 필요해 신앙을 결단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한다.

3세대 부의 부가 어떻게 신앙을 시작했는지 알 수는 없다. 부는 총각 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으나 믿는 자의 배신으로 신앙을 중단하고 믿는 사람들을 예수쟁이라고 폄하하며 싫어했고 적극적으로 막지는 않았으나 자녀들에게도 '학생이 공부해야지'라며 교회에 나가는 것을 반대했다. 그런 부가 신앙을 결단한 계기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외손주의 불치병을 낫게 하려고 어느 날 가족들을 불러 '이제부터 가족 모두 교회 출석한다'라고 선포하고 제사도 없었다.

4세대 딸이 중학교 때 교회의 워십 팀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공부에 소홀하여 3세대 부모가 워십 활동을 그만두라고 하였다. 이후 딸은 교회에 적응하지 못하고 계속되는 성적하락으로 급기야 '나의 하나님은 없다'라며 하나님을 부인하였다. 3세대 모는 이때 정신이 번쩍 들며 3년을 딸의 신앙회복을 위해 눈물로 기도했다.

제가 그때 정말 회개를 많이 했어요. ... 하나님이 교회에서 우리 OO가 필요하다고 하는 일은 어떻게 사용하셔도 제가 아이의 앞을 반대 의견을 절대 내지 않겠다고. (3세대 모)

② 교회의 도움

4세대 딸은 고3 때 수련회 참석 후 점차 신앙을 회복하였다. 청년부에 올라가니 언니 오빠들이 예뻐해 주고 자주 연락해 주고 만남으로 이전에 워십팀에서 느꼈던 가족 같은 셀원들을 만난 느낌이 들었고 환대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4세대 딸은 자신이 어려서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에 노출됐던 사전 작업이 있었기에 거부감 없이 다시 신앙을 받아들이고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3세대 모는 5살 때 동네 교회 전도사님의 전도로 동네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이후 친조모의 도움으로 교회를 다녔으나 어떻게 혼자서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냐는 질문에 그 당시에는 한국 교회의 부흥기로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심이 뜨거워 함께 어울리며 신앙생활 할 수 있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회 남자친구들의 도움으로 남동생들을 전도하였고 전도사님의 가정 심방 등으로 부모를 전도하였다.

③ 가족의 도움

3세대 모는 어린 나이에 동네 교회 전도사의 전도로 집안에서 최초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다. 전도사가 매주 데리러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친조모가 교회에 데려다준

덕분에 어린 나이서부터 교회에 다닐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세대 모의 눈물의 회개 기도와 신앙 우선이라는 결단은 4세대 딸이 신앙을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3세대 모는 현재도 딸과 말씀을 나누며 딸의 신앙에 버팀목이 되어 주고 있다. 3세대 모의 모는 남편이 임종 전에 영접하고 자신도 교회를 다니고 있어 제사를 지내고 싶지 않았으나 큰아들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제사를 없애자는 말을 못 하셨다. 가족들은 큰아들이 신앙을 갖기까지 재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

4세대 딸은 가족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사건, 사고 없이 또 형제간에 갈등 없이 지낼 수 있는 건 할머니의 기도 힘이라고 했다. 3세대 부는 가족 누군가가 계속 '신앙의 끈'을 잡고 다른 가족들에게 연결해 주며 묵묵히 기다려 준 것이 가족이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다고 했다.

저희가 4대라고 얘기를 했지만 중간에 기복도 있었고 안 믿는 가족도 있었고 결국 가족 누군가가 끈을 잡고 있다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요. 외할머니가 시작을 하셨는데 그게 어머니한테까지 왔었고 어머니가 끈을 놓으셨다가 주변에 이모님들이 잡고 계셨고. ... 이 사람(아내)도 결혼하면서 끈을 낚을 때 조카로 인해 잡게 됐고 OO(딸)가 돌아섰을 때도 다 같이 돌아서지 않고 이 사람이 끈을 잡고 있었고 (3세대 부)

④ 신앙체험

3세대 모의 학창 시절에는 부흥회가 많아서 성령 체험도 많았다고 한다. 모도 중학교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새벽예배 가는 길에 귀신을 보며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었다.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무서워 가족 전도를 지상목표로 삼고 가족 모두를 전도했다. 무엇보다 모가 경험한 신앙체험은 불같은 세밀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모는 53년 동안 체험한 하나님 사랑을 가족 모두에게 전하고 싶은 열망이 뜨겁다. 딸의 신앙 위기와 회복 과정을 통해 자녀들에게 신앙을 놓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함을 절실히 깨닫고 신앙 전수를 다짐하였다.

4세대 딸도 신앙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쉽게 경험하지 못할 영적 체험을 했다. 고3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 그녀는 성적을 올려달라는 기복 신앙적인 기도를 반복하였으나 성적이 계속 오르지 않았고 급기야 6월 모의고사 성적이 크게 하락한 후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교회에서 준비한 깜짝 이벤트였어요. 엄마가 와서 기도하는데 앞에서 막 방언 터지고 엄마 옆에서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저는 그때 신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앉아 있었어요. 뺨뚫해서 눈을 딱 감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소리로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나를 배척을 한다고 해도 나는 너의 뒤에서 기다리고 있다. 돌아와라. OO아'라고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그때 진짜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되게 울면서 회개도 많이 하고 신앙을 슬슬 회복 하기 시작해서. (4세대 딸)

3세대 부의 부는 외손자의 회귀병을 낫게 하려고 신앙을 결단하였다. 2세대 부는 외손주의 병이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생명 유지와 일상생활을 할 수 있게 해 주심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던 것으로 생각된다고 가족들은 말한다.

⑤ 하나님의 기다림

3세대 모는 현재 가족의 신앙 상태는 과도기라고 하였다. 시모가 시부 사망 후 정서적으로 힘들어지고, 시모와 4세대 딸들의 마찰로 얼마 전 시모가 독립하고, 남편의 퇴사, 자녀들의 불안정한 진로 등 가족이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무엇을 보고 갈지 하나님께서 유심히 지켜 보고 계신 것 같다고 하였다. 4세대 딸은 하나님께서 가족이 조금 더 열심을 내길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고 한다. 3세대 부는 가족이 신앙적 과도기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가족을 바라볼 것이라고 하였다.

⑥ 순전한 믿음 생활

집안에 신앙의 포문을 연 3세대 부의 외조모는 무학문맹이었으나 성경을 읽기 위해 한글을 배웠다. 또한 외조모는 개천가에 있던 천막 교회의 처지가 안타까워 집 옥상을 교회 장소로 내주었다. 외조모의 이러한 헌신적인 신앙생활의 영향인가 외조모의 자녀들 즉 3세대의 부의 이모·삼촌들 사이에서 목사, 선교사가 배출되고 이들이 모이면 형제자매들이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한다는 것이다. 3세대 부의 부는 신앙 결단 후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할 정도로 성실히 신앙생활을 했고 3세대 부의 모와 3세대 모의 모는 적극적으로 교회 활동을 했다. 또한 3세대 모의 친조모도 문맹이어서 성경을 읽지는 못했으나 찬송을 즐겨 부르고 주일성수를 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

한편, 3세대 부는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고 항상 자신을 교회만 왔다 갔다 흉내만 내는 신앙인이라고 낮게 평가했다. 4세대 딸은 온라인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복장과 자세를 갖춰 찬양을 진심으로 부르는 부의 모습에서 신앙의 진심이 느껴졌다고 증언했

다. 3세대 부는 순전한 믿음과 자신에게도 '성령의 뜨거움'이 있길 소망하고 있었다.

제가 아는 종교 지식 가지고는 도저히 인간적인 지식의 한계를 못 벗어나는 것 같아요. ... /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원하는 거 그렇게 안 해 주실지라도 그게 당신 뜻이라면 그대로 따르겠나이다. ... 못할 거 같아.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3세대 부)

⑦ 가족을 통한 영적 가족관계 경험

4세대 딸은 코로나로 가족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하며 더 친밀해지고 신앙적 교제도 늘어났다고 한다. 4세대 딸은 독립했다가 집으로 들어와 가족 특히 모와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모와 말씀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과정에서 모를 통해 하나님을 더욱 느낄 수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4세대 딸은 3세대 부가 딸들에게 스스럼없이 다가와서 장난도 치고 다정하게 대해 주는 모습을 통해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이미지를 갖게 됐다고 한다.

(부가) 표현도 더 많으시고 딸들한테 ... 저는 살면서 한 번도 아빠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 그래서 ...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표현 앞에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 줄 거야라는 이런 느낌이 거의 없어요. (4세대 딸)

추가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 3세대 부는 딸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자녀의 선택을 존중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내 욕심을 강요함으로 갈등을 빚는 것보다 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딸은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랑 있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 부모를 단편적으로만 봤다면 성인이 되어 함께 하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달라졌다고 한다. 그리고 4세대 딸은 인간이기에 개인적으로 넘어지기도 하지만 부모와 믿는 친척들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고 하였다.

부모님을 봤을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말씀들이 되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

하라는 말이 되게 싫었어요. ...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방법은 아껴 주는 거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방법은 존중하는 거더라는 걸 되게 많이 보고 배우는 것 같아요. (4세대 딸)

⑧ 가족 우선

본 연구에서는 가족이 유독 가족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특징이 나타났다. 3세대 부의 부는 이복형제와 동복형제 간에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 초등학교 교사였던 부는 학생들에게는 엄격한 교사였으나 자녀들에게는 자상하였다. 그리고 2세대 부는 외손자를 살리기 위해 가족 전원 교회 출석을 선포하였고 가족들은 이를 따랐다. 3세대 부모도 2세대 부를 닮아서 일에는 완벽하고 가족에게는 충실하고 따뜻하다. 이혼한 처남의 자녀들까지 살뜰히 챙기고 장인어른의 추도예배를 본인이 인도한다. 2세대 모와 4세대 자녀 간에 세대 차이로 갈등이 있을 때 3세대 부모는 각각의 세대를 이해하며 관계를 조율한다.

(3) 신앙 전수 과정의 어려움

가족에게 신앙 전수 과정에 어려움의 요소가 여러 개 있었으나 핵심적인 요인은 '신앙보다 우선인 가족', '친밀감 중시', '세상의 가치관 우선시'에 있는 것으로 보였다. 3세대 모는 결혼하고 순탄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없었다. 어린 나이에 결혼한 3세대 모는 시부가 어렵고 무섭기도 하고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생각도 있어 믿지 않는 시력에 대해 신앙을 지키는 것은 힘들었다. 또한 3세대 모는 친정부가 교회에 상처 받아 교회를 나가지 않았던 것처럼 시부가 교회 나가는 걸 반대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해 시부의 말을 따랐다고 한다. 한편, 3세대 모는 현재 남편 없이 혼자 예배드리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서운함이 있어 아직 현장 예배에 복귀하지 않고 있다.

늘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저희가 굉장히 행복했었어요. 저는 예배가 잔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축제예요. 일요일마다 너무 기쁘게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 게 너무 좋았었던 말이에요. 그러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저 혼자 예배가 외로워졌어요. ... 남편과 어머니로부터 받은 상처도 있었잖아요. 둘이 그냥 (교회에) 가 버리고. ... 다들 잔치에 왔는데 나만 이방인 같은 느낌으로...(3세대 모)

3세대 부는 외가와 친밀하게 왕래하며 외가 옥상에 있는 천막 교회에 다녔다. 외가에 가면 외조모, 이모·삼촌들이 교회에 가니 자신도 자연스럽게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러나 3세대 부는 교회가 물리적으로는 가까웠으나 푸근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요약하면, 3세대 부가 부모의 반대로 교회에 나가지 않은 것도 있으나 교회에서 정서적으로 적응하지 못해 교회와 멀어졌고 3세대 모는 혼자 교회에 다니는 것이 외로워 현장 예배를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 2세대 부들 역시 교회에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 교회와 단절했다가 이후에 신앙을 회복했다. 4세대 딸은 부모의 교회 활동 반대와 성적하락, 이전만큼 따뜻한 소그룹 모임이 아니어서 교회와 멀어졌다가 신앙체험과 청년부의 환대로 신앙을 회복하였다.

한편, 3세대 부의 부와 3세대 부는 자녀들이 학생으로서 학업보다는 과하게 교회활동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4세대 딸은 성적을 올려달라는 기도를 반복하다가 고3 6월 모의고사에서 성적이 크게 하락한 것에 낙심하여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기도 하였다. 2세대 부와 3세대 부의 일에 대한 완벽한 태도와 자녀들의 학업 중시 강조, 4세대 딸의 성적 중시 등 세상의 가치관 우선시가 가족의 신앙에 영향을 미쳤다.

두 번째 연구 참여 가족

첫 번째 연구 문제인 ‘가족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에 대한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9개의 의미 단위, 6개의 하위범주, 3개의 범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연구 문제인 ‘가족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세대 전수를 해 오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66개의 의미 단위, 24개의 하위범주, 9개의 범주로 분류되었다. 마지막 연구 문제인 ‘가족에게 신앙의 전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8개의 의미단위, 4개의 하위범주, 3개의 범주로 나왔다(표 4 참조).

〈표 4〉 두 번째 연구 참여 가족의 범주화 결과

가족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의미단위	하위범주	범주
가족의 생각을 같은 방향으로 모아 주고 함께 하게 함	다름을 극복, 하나되게 함	연합
가족이 생각과 성격이 다름에도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로 묶어줌		
함께 함으로 외롭지 않고 든든해서 행복	함께해서 행복	
신앙은 가족에게 핵심이고 중심	가족의 핵심	가족의 중심 가치관
가족의 마음을 잘 맞게 해 주는 가치관으로 더 하나가 되어 끈끈하게 해 줌	가족의 가치관	

신앙은 자신과 가족에게 영양분	가족의 영양분	좋은 영향
좋은 영향을 주는 좋은 친구 역할	바른 길	
바른 길로 가게 하는 역할		
주변에 흔들리지 않고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정답지		
가족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세대 전수를 해 오고 있는가?		
신앙을 알기 전 단순하고 주어진 삶이었다면 신앙을 안 후에는 새로운 삶의 방향을 알	교회가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 제공	새 세상 보게 한 교회
교회에서 재미와 문화적인 것을 접해서 좋았음	즐거움과 문화제공	시대적 배경
부흥회는 동네 잔치	한국 기독교 부흥기	
한국 기독교 부흥기로 신앙생활에 적극적임일 수 있었음	몸과 마음의 힘들을 신앙에 의지	육신의 힘들을 신앙으로 극복
6형제를 홀로 키우며 신앙 시작한 1세대 친조모		
아들 병을 고치려고 기도원 다님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서 풀어냄		
가족의 어려움을 같이 기도로 극복하여 신앙으로 뚝뚝 뭉치게 됨		
부모가 몸과 일상의 힘들에도 새벽기도 후 찬송 흥얼거림		
심신이 지쳤을 때 귀향 후 신앙으로 안정		
메몰된 감정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 해 줌		
2세대 부의 결단을 모두가 기다림	가족 구성원의 신앙을 기다려줌	자발적인 신앙 결단을 기다림
자녀들 각자의 신앙을 가질 수 있게 영적체험 기회 줌		
간간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지 확인 및 고백함	가족에게 신앙적 영향 미침	
2세대 부모가 3세대 부의 목회자 직업에 대한 존중으로 신앙 시작		
3세대 부를 따라 여동생들이 교회 나옴	신앙으로 스스로 돌아옴	부모의 울곧은 신앙의 모습
형제자매들 믿는 배우자, 목회자 만나게 영향 미침		
교회 근처로 이사하면서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된 2세대부	신앙 결단 후 적극적인 신앙생활 함	
부가 목회자라는 점이 신앙회복 계기됨		
중손 집안에서 기독교 집안으로 개혁	부모의 기도	
3세대 부의 부모의 신앙 결단 후에 적극적으로 신앙생활 함		
신앙 결단 후 제사를 추도에배로 전환		
부모의 결길로 가지 않고 울곧은 신앙을 모델로 삼음	부모의 기도	
부모의 기도로 3세대들이 힘든 과정 넘김		
부모의 기도가 버팀목이었음		
무뚝뚝하고 애정 표현을 하지 않으나 기도로 자식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		

부가 지치면 모가 끌어줌으로 부모 모두 영적 가장임	부모가 자녀의 신앙의 거울	부모의 울퉁은 신앙의 모습
부모가 자녀의 거울이 되는 것		
기도, 말씀 가까이 한 부모 삶이 자녀 내면에 뿌리내림		
가족의 삶을 통해 성경적인 가족의 모습을 알게 함	가족을 통해 사랑을 알게 함	
결혼 전에는 사랑을 몰랐으나 결혼 후에는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 마음에 사랑을 심어 줌		
부모가 목회자여서 가족을 통해 신앙의 가르침 배움		
가족 통해 배운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실천하고픈 소망	가족의 신앙적 분위기	가족의 신앙적 문화
축제 분위기로 추도식 드림		
믿지 않는 누나도 거부감 없이 추도예배에 참여		
가족이 같이 신앙생활을 함으로써 시간을 많이 보내며 얘기할 수 있어서 좋음	대대로 이어지는 목회자의 길	
가족이 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묵상하며 나눔		
혼자 가슴에 묻어두지 않고 함께 기도함		
3세대 부모의 형제자매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도 목회자가 됨	기도로 준비된 배우자 만남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교회 언니가 3세대 부모 위해 3년 동안 기도하여 만남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을 만나겠다고 기도하고 만남		
3세대 부모가 처음 만나서 얘기하는 동안 깨복쟁이 친구 보듯이 편안하게 만남	말씀대로 사는 삶	
말씀에 순종하여 전혀 알지 못하는 사역지로 옮김		
말씀을 품고 살려고 함		
자녀에게 가끔 하나님이 삶에 우선순위에 인지 확인함	하나님을 우선하는 신앙	
어떤 생각과 결정이든 가족보다 하나님 우선으로 함		
신앙의 유산을 받은 자신이 어느 정도의 길에 서 있는지 궁금해 함		
두려움의 대상이자 강하게 신앙을 반대한 2세대 부에게 하나님이 주신 용기로 신앙 선포	가족들 각자의 신앙 경험	
부흥회 참석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목사 서원		
수련회나 집회에서 4세대 자녀들 성령 체험		
주변의 까마귀들의 돕는 손길	재정적인 도움	신앙 체험
개혁교회 인수과정에서 모자란 돈을 꿈을 통해 보여 주시고 꿈대로 이뤄 주심		
선교자금이 부족할 때 채워주심을 경험해 좀 더 재정적으로 자유해짐		
하나의 기도를 할 때 가족들이 같은 같은 응답을 받고 순종함	함께 기도해 같은 응답 받음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술의 힘을 빌려 괴로운 도축 일을 한 3세대 부의 부	책임감	가족의 정신적 유산
객지에서 혼자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산 것을 부모에게 주장하며 신앙생활 허락받음		
3세대 부모가 재정적으로 씨름하며 개척교회 사역하는 것을 함께한 4세대 자녀들의 재정적 독립	열심과 적극성	
중고등학교 시절 열심히 교회 활동		
일하며 공부하느라 허리디스크 생김		
3세대 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3세대 부와 함께 사역전념	주변의 인정	
3세대 모의 일 잘하는 모습을 보고 군청 직원이 직접 3세대 모의 입사 원서 접수		
3세대 부가 아내의 오빠인 목사님과 청년 때 담임목사님으로부터 목회 사역 인정받고 사역지 얻음		
얼마 전 고향 교회로부터 담임목사로 청빙 받음	끈은 성품	
소문난 곱슬머리 고집쟁이 친조모의 고집스런 성품이 집안의 신앙을 이어올 수 있게 함		
3세대 부는 신앙, 진로, 결혼, 사역 등 결심한 바를 끝까지 밀고 나감		
믿는 학원 원장과 직장 상사의 이중적이고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는 모습이 싫어 직장 그만둠		
가족에게 신앙의 전수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가?		
아들 사망으로 하나님 원망과 신앙생활 중단, 자식들의 신앙생활을 중단시킴	의지의 대상에서 원망의 대상으로 바뀜	일관되게 주장
3세대 모의 셋째 오빠가 형의 죽음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생활 중단	부모의 반대	
자녀가 일손을 돕지 않아 신앙생활 반대함		목회자 자녀로서의 부담
일반대 아닌 신학대 간다고 하여 학비를 대주지 않음		
중학교 때는 교회와 분리해서 자신의 생활을 함		
교회 성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음	가족과 떨어진 자녀의 신앙 소홀	가족과 떨어짐
성도들로부터 친구들과의 교제까지 영향받아 싫었음		
가족과 떨어진 4세대 아들의 신앙 소홀		

(1) 가족에게 신앙이란

연구 참여 가족1과 동일하게 연구 시작과 마지막에 가족에게 신앙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반복하였다. 이들은 가족이지만 세대가 다르고 생각이나 성격, 가치관이 다르나 신앙이 중심 가치관이 되었기에 가족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끈끈하게 해주었다고 말했다. 또한 신앙은 삶의 영양분이자 주변으로부터 흔들리

지 않게 방향과 조언을 해주기 때문에 든든하다고 하였다.

가족들끼리 누가 고민이 생기거나 그러면 서로 뭔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 주고 이럴 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하나로 묶어주는, ... 신앙 안에서는 생각이 이렇게 같아지는 그런, 저희를 하나로 좀 묶어주는 그런 것 같아요.(4세대 딸2)

(2) 가족의 신앙 유지와 전수 방법

두 번째 연구문제인 ‘가족은 어떻게 신앙을 유지하고 세대 전수를 해 오고 있는가의 세대 전수를 해 오고 있는가’는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한 교회의 도움, 시대적 배경, 육신의 힘들을 신앙으로 극복. 자발적인 신앙 결단을 기다림. 부모의 올곧은 신앙의 모습, 가족의 신앙적 문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신앙체험, 가족의 정신적 유산으로 분류했다.

① 새로운 세상을 보게 한 교회의 도움

3세대 부는 교회가 새로운 문화와 즐거움뿐만 아니라 새로운 가치관과 목표를 주는 곳이였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그 전까지 전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세월 가는 대로 살았다면 이제는 왜 살아야 되고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지 방향을 찾았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3세대 부)

② 시대적 배경

3세대 부모가 신앙 생활했던 시기는 한국 기독교 부흥기로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부흥회가 곳곳에서 열릴 때이다. 3세대 부와 모는 교회에서 많은 또래 친구들과 교류할 수 있었고 부흥회나 문화체험을 경험하며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다.

③ 육신의 힘들을 신앙으로 극복

3세대 모의 친조모는 30대에 남편을 잃고 6형제를 홀로 양육하면서 신앙을 갖고 유지했고 3세대 모의 모는 둘째 아들의 언어장애를 고치려 기도원과 은사 집회들을 다니며 기도했다. 3세대 모는 가족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신앙으로 해결하고 극복하려는 태도가 가족의 신앙을 더 단단하게 한다고 말했다.

애들이 말한 것처럼 그냥 본인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세상 애들처럼 세상에서 그런 즐겁고 쾌락적인 것들로 이렇게 뭔가를 풀려고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풀어내려고 하고 신앙 안에서 이것들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것들이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3세대 모)

3세대 모는 힘든 삶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즐거움을 느끼는 부모님을 통해 신앙을 다짐하였다. 3세대 부는 임시 실패와 허리디스크로 힘들어 귀향할 때도 이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고향교회로 돌아가 사역을 도우며 신앙이 안정되었다고 하였다. 4세대 둘째 딸 역시 흔들리기 쉬운 자신을 잡아주는 신앙을 통해 안정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④ 자발적인 신앙 결단을 기다림

3세대 부의 가족 중 가장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3세대 부의 부이다. 3세대 부는 교회 나가기 전부터 교회에 장손의 탄생에 감사헌금을 하고 아들과 사위들의 목회자의 삶을 존중하는 등 교회에 긍정적이었다. 또한 3세대 부의 모는 목회자라는 직업에 대한 존중으로 며느리인 3세대 모에게 제사를 자신의 대에서 끝낼 것이니 신경쓰지 말라고 말했다.

3세대 부는 가족들에게 전도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3세대 부가 전도사인 모교회에서 중고등부 생활을 했고 믿지 않는 형과 여동생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결혼하는 등 가족들은 3세대 부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받았다. 3세대 부는 지금 온 가족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행 16:31)”의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가족에 대한 존중은 스스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신앙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3세대 부모의 신앙관에서 나타났다.

인카운터라든가 이런 수양회를 많이 체험하게끔 했었어요. ... 체험해야 아이들이 본인 스스로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3세대 부)

⑤ 부모의 울곧은 신앙의 모습

3세대 모의 부는 교회를 한동안 나가지 않다가 교회 근처로 이사한 뒤 스스로 교회에 출석하였고 4세대 첫째 딸은 심적으로 방황하였으나 아버지가 목회자라는 점 때문

에 방향을 멈추었다고 하였다. 3세대 부의 부는 가족 내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고 그의 믿음의 결단 이후 제사에서 추도예배로 전환이 되며 순식간에 기독교 집안으로 개혁되었다. 3세대 모는 부모님이 꾸준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습을 신앙의 모델, 기도의 버팀목으로 보며 닳고 싶은 모습이라고 말하였으며 무뚝뚝한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보게 된 성경책에 꽂힌 기도 쪽지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했음을 알게 되어 사랑을 느꼈다고 한다. 3세대 부는 부모님의 기도로 자신의 형제들이 힘든 과정을 넘어갈 수 있었다고 하였다.

4세대 딸들 역시 부모님의 삶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라 생각하며 사역을 함께 하는 두 분을 영적인 가장으로 여기며 존경하였다.

얼마 전에 애가 나한테 썼던 편지의 문구가...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지금의 엄마를 보며 딸은 희망을 품어요. 엄마 아빠의 삶은 간증 같아요'. ... 그래서 우리 부모는 거울이 되어야 하는구나 이제 이거를 생각하면서. (3세대 모)

3세대 모는 결혼 후에 하나님이 가정을 통해 사랑을 심어주고 있음을 느꼈으며 4세대 딸들 역시 가족을 통해 사랑을 배우고 사랑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가족을 만든 이유를 알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가족 안에 사랑이 충만함으로 인해 가족을 넘어 가족을 통해 배운 사랑을 이웃에게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하였다.

하나님이 이런 신앙을 통해서 가족을 정말 가족처럼 살아가게 하고 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며 순종하는 법도 나에게 알게 하시고... 서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렇게 다 공유하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뭔가 가족이라는 거를 구성하게 하시지 않았을까 (4세대 딸1)

⑥ 가족의 신앙적 문화

3세대 부의 원가족을 포함해 가족이 모이면 교인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신앙 이야기를 하며 많은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 3세대와 4세대는 현재 가족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서 좋다고 하였다. 3세대 모의 오빠의 아들이 목회자가 되고 3세대 부의 형수님이 목사안수를 받는 등 가족 안에서 목회자가 늘어나고 있다.

⑦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삶

3세대 부모는 기도로 준비된 만남이다. 둘의 공통된 지인이 기도할 때 같이 떠오른 3세대 부와 모의 만남을 위해 3년을 기도하였다. 그 동안 두 사람은 인간적 조건보다 하나님을 원하시는 상대를 만나겠다고 기도가 변화하여 만나게 되었다. 3세대 부모는 사역을 시작하면서부터 현재의 개척교회로 사역지를 여러 차례 이동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움직였다.

3세대 부모는 어떤 생각과 결정이든 하나님을 우선시하였는데 이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고백하게 하는 점과 가족의 신앙의 역사를 궁극해하는 점, 자신이 신앙의 길에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싶어서 연구에 참여한 것과도 연결된다. 그리고 그런 태도를 자녀들에게도 당부하였다.

저희는 믿죠. 개 안에 늘 ... 내가 이제 물어봐요. 일부러. 가장 우선적인 선택권에서 우선적인 것이 뭐야? 하나님이죠. 그 고백을 듣고 싶은 거죠. 입술로 고백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3세대 모)

⑧ 신앙체험

참여자2 가족은 개인적으로 신앙체험을 하기도 하고 공통의 사건으로 경험하기도 했다. 3세대 부모와 4세대 자녀들은 부흥회나 수련회에서 다양한 성령체험을 하면서 각자의 신앙을 형성하였다. 3세대 부는 부흥회에서 성령의 인도함으로 목사 서원을 하였고 맞설 엄두도 되지 못했던 엄하고 무서운 부에게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하였다. 또한 신학교 등록금이 채워짐과 교회 개척 자금이 부족한 것이 해결되는 예지몽이 현실에서 이뤄지는 일과 3세대 모의 선교자금이 부족할 때 채워주심으로 재정적 자유를 얻었다. 최근에도 3세대 부의 사역지 이동을 놓고 가족이 기도할 때 모두가 같은 응답을 받기도 했다. 신앙체험을 통해 가족은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면 그 이후는 하나님이 어떻게든 도와주심을 다시금 알게 되었다고 한다.

⑨ 가족의 정신적 유산

가족들은 책임감 있는 태도로 맡은 일을 열심히 하였고 주위에서 인정받았다. 3세대 부의 부는 도축회사의 팀장으로서의 책임감, 가정의 책임감으로 매일 술의 힘을 빌려서까지 힘들고 괴로운 도축 일을 했다. 3세대 부는 아버지에게 자신이 학생으로서 열심히 공부하고 바르게 산 것을 주장하고 이를 인정받아 부의 허락하에 교회를 다녔다.

3세대 부는 고등학교 졸업 후 회사를 다니면서 대학을 다니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일과 공부를 병행하였다. 3세대 모는 고등학교 졸업 후 군청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성실함을 눈여겨본 직원이 공무원 입사서류를 본인이 준비한 후 3세대 모에게 지원을 강하게 권하였다. 3세대 부는 목사인 아내의 오빠가 같이 일하고 싶은 전도사였으며 그런 점에서 동생의 결혼을 반대하는 아버지를 설득하고 추후에 자신이 목회하는 교회에 3세대 부와 함께 근무했다. 3세대 부는 지금의 개척교회로 옮길 때 이전 교회에서 5년 사역을 완수하면 주는 개척비용을 지원받은 최초의 목사였으며 얼마 전에는 고향의 모교회에서 담임목사로 청빙받기도 하였다. 4세대가 경제적으로나 학업적으로 자신들이 알아서 하는 모습에서 이러한 유산이 내려움을 알 수 있다.

3세대 모의 친조모는 동네에서 소문난 고집쟁이로 엄격하게 6형제를 키웠다. 그 아들인 3세대 모의 부 역시 자신의 삶이나 자식 교육에 있어서 엄격했으며 이는 3세대 모에게도 연결되었다. 3세대 모는 교회와 직장에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신앙인으로서 옳지 못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에게 충격받고 회의감이 들어 직장을 그만두었다. 3세대 부는 한 번 결심하면 결심대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성향이 있으며 이러한 성향은 대학을 진학하는 과정에서나 결혼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3) 신앙 전수 과정의 어려움

가족의 신앙 위기는 일관되게 주장함으로 인한 위기, 목회자 자녀로서 생긴 위기, 가족과 떨어짐으로 인한 위기가 있다. 3세대 모의 친조모는 집안에서 가장 먼저 신앙을 믿음을 갖고 자녀에게 전수하였지만 제일 아끼던 아들이 사망하자 하나님을 원망하며 자녀들의 신앙생활까지 강제로 중단시켰다. 또한 3세대 모의 셋째 오빠는 바로 위의 언어장애가 있는 형이 갑자기 죽자 어떻게 하나님이 가장 불쌍한 사람을 데려갈 수 있느냐고 원망하며 교회를 떠났다. 이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을 돌리지 않고 한번 든 원망을 계속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3세대 부의 부는 아들이 일손을 돕지 않는다는 점에서 3세대 부가 교회 나가는 것을 반대하였고 자신의 뜻과 다른 신학대 진학도 반대하였다. 두 번째 위기는 3세대 부의 목사 직업에 대한 부담으로 4세대 첫째 딸은 신앙의 위기를 경험했다. 첫째 딸은 교회 성도들이 목사 딸임을 알아보는 것에 대한 부담과 성도들이 자신의 친구 관계까지 관여하는 것 같아 싫었다고 한다. 사춘기가 찾아오면서 교회에 대한 부담을 벗어나고자, 아버지의 목회와 분리된 삶을 살며 일탈을 했다고 말했다. 세 번째 위기로 4세대 아들은 다른 지역에서 혼자 살며 한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예배에도 빠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예배를 철저히 지키는 가족에게 이런 아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고 있다.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하면 할수록 이제 얘기도 나눌 수 있고 힘을 얻어갈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오빠가 좀 같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게 있어서 조금은 아쉽기도 한데 (4세대 딸2)

2) 사례 간 분석 결과

연구 참여 가족 간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보기 위해 각 연구 참여 가족의 범주표를 분석하였다. 각각의 연구문제 내 하위범주를 중심으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1) 사례 간 유사점

① 가족에게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유사점

참여 가족들은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공통적으로 신앙은 가족을 모아주고, 같은 방향으로 가게 하고, 사는 데 힘이 되어 준다고 하였다. 신앙은 가족에게 하나의 목표를 제시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 그러므로 가족 개인의 가치관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신앙을 중심으로 마음을 모을 수 있게 한다. 또한 신앙은 가족이 삶을 살아가는 데 힘과 영양분이 되어 가족이 같은 방향으로 갈 때 응원하는 역할을 한다.

② 신앙 유지와 전수 방법에 대한 유사점

참여자 가족들의 신앙 전수 과정에서 총 여섯 가지 공통점이 나타났다. 이 다섯 가지는 '적극적인 신앙생활', '가족을 중요하게 여김', '가족을 통해 하나님 사랑 경험', '신앙체험', '기독교 부흥기의 영향', '교회의 도움'이다.

첫 번째 공통점은 두 가족 모두 신앙의 1세대가 신앙을 갖게 된 후 적극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두 가족의 1, 2세대들은 문맹이라도 말씀을 사모해 성경을 가까이하고 규칙적인 기도생활과 예배를 놓치지 않으며 성실하게 신앙생활 했다. 두 가족 모두 3세대 부의 부가 원가족 안에서 가장 늦게 신앙을 결단하였으나 이들의 신앙 결단은 개인의 신앙에서 가족의 신앙으로 확장시켜 기독교 집안으로의 변화를 일으켰다.

둘째, 참여자 가족 모두 가족을 중요하게 여겼다. 두 가족 모두 기독교 집안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안 믿는 구성원에게 강요하지 않고 구성원을 존중하며 믿음으로 기다렸으며 특히 4세대들이 3세대 부모들의 이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셋째, 참여자 가족들은 성경 말씀처럼 서로를 대하고(엡 5:22-33, 엡 6:2 등) 살아 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가족을 통해 성경에 나온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에

감사해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들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후대에도 전달하고 싶고 가족을 넘어 이웃까지 사랑하며 신앙적 가정의 모델이 되고 싶은 소망을 품고 있다.

넷째, 두 가족의 구성원들 대부분 특별한 경험, 환상을 보거나 방언, 기도 응답 등을 경험하여 하나님의 존재와 그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였다. 이러한 체험들을 바탕으로 이들은 자신과 하나님의 관계를 인식하여 실존하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었다.

다섯째, 양가의 1대부터 3대가 신앙생활을 했던 시기는 기독교 부흥기와 맞물려 있으며 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따라서 구성원에게 사역자의 직접적인 전도나 이웃의 전도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가난하고 놀거리가 없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하여 미래에 대한 꿈과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하는 도움을 주었으며 그곳에 있는 친구들과의 교제가 이들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었다.

③ 신앙 전수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한 유사점

두 사례 모두 부모의 반대와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됨이 신앙 전수 과정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앙을 유지시키고 전수하게 한 특성이 동시에 신앙 전수 과정의 어려움이 되기도 하였다. 먼저 부모가 반대하여 자녀나 며느리가 신앙생활을 중단하거나 지속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던 가족이 따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남겨진 구성원이 외로움을 느껴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거나 떠난 구성원이 신앙생활에 소홀해지기도 하였다. 마지막 유사점은 신앙 유지와 전수에 좋은 영향을 준 특성이 어려움을 주었다는 점이다. 가족 간의 친밀함을 우선시하여 가정의 선포나 가족을 위한 기도가 신앙을 전수하게 했지만 동시에 부모에게 순종하느라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또한 고집스럽고 엄격한 특징이 힘들음 신앙으로 극복하게 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였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을 때는 돌아보지 않고 단호하게 중단하여 전수에 어려움을 겪게 했다.

(2) 사례 간 차이점

① 연구 참여 가족1의 특징

두 가족 모두 인간적인 특징이 신앙 전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방해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때 두 가족 간의 인간적인 특징은 달랐다.

연구 참여 가족1의 특징 중 '가족 우선'과 '친밀감의 욕구'는 세 번째 연구 문제인 가족의 신앙 전수의 어려움에 영향을 미쳐 가족이 신앙보다 우선시 되고 친밀감을 다소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세대 부모는 진로, 결혼, 신앙 고수 등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부모의 말에 따르거나 가족관계를 중시하여 '신앙 결단'을 단호하게 하지 못하

였다. 또한 양가의 2, 3, 4대에 나타나는 공통적인 특징은 무리에서 느껴지는 외로움에 취약하고 정서적인 친밀감을 원하는 것이다.

(부가) 교회에 갔는데 아무도 나를 반기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나를 반가워하지 않는 곳에 내가 꼭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셨다고. 그리고 되게 서운하셨대요. (3세대 모)

본 연구에서 연구 참여 가족1의 또 다른 특징을 '신앙의 본궤도에 오르기 직전의 가족'으로 보았다. 3세대 부의 말처럼 참여 가족1의 신앙은 믿는 가족들이 믿지 않은 가족에게 신앙의 끈을 연결해 주고 믿었던 가족들이 끈을 놓으면 또 누군가가 한쪽에서 끈을 잡고 있다가 연결해 주는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러나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되면서 견고하고 순전한 믿음의 색깔을 드러내 가고 있다.

② 연구 참여 가족2의 특징

연구 참여 가족2의 특징은 '곧은 성품으로 올곧게 신앙생활과 사회생활하거나 또는 등지거나'로 명명할 수 있겠다. 3세대 모의 신앙 1세대인 친조모는 '소문난 곱슬머리고집쟁이'로 조모의 고집스럽고 엄격한 성품이 2세대 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었다. 2세대 부가 새벽예배 갔다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이들이 자고 있으면 불호령이 떨어지고 통금시간, 옷차림, 행동거지 하나하나를 엄하게 교육하였다. 3세대 모는 결혼 전 공무원이었으나 자신이 존경하는 안수 집사이자 직장 상사가 이중적이고 정당하지 않은 모습이 싫어서 직장을 그만두었다. 3세대 부는 객지에서 혼자 살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결길로 빠지지 않으며 바르게 산 자신의 모습을 내세워 부에게 교회에 나가는 걸 허락받았다.

내가 교회를 다녀서 내가 더 열심히 했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다 른 친구들은 다 결길로 나갔지만 ... 그때 아마 무릎 꿇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랬더니 ... 앞으로 가려면 그렇게 도망치듯 가지 말고 말하고 가라고. (3세대 부)

4세대 딸은 목회자 자녀로서의 부담감과 사춘기로 부의 목회와 분리되어 자신의 삶을 살았다. 4세대 딸은 제대로 벗어나다가 목회자 딸이 이러면 안 되지 않나 싶은 마음에 신앙을 회복했다고 한다.

연구 참여 가족2의 성품은 올곧다. 신앙생활도 올곧게 하는 '단단한 가족'이다. 이들은 가족의 어려움이 오히려 자신들을 신앙으로 푼뜰 뭉치게 한다고 하였다. 3세대 부가 20대에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몸까지 아파 집으로 돌아왔을 당시에 세상적으로는 낙심되고 절망스러웠겠으나 고향교회를 섬기며 신앙으로 안정됐다고 하였다. 반면에 가족의 이러한 신앙적 특징은 아들과 형의 죽음이라는 고난 앞에서 크게 실망하고 신앙을 떠났다 회복하기도 했다.

6. 연구 논의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4대 기독교 가족인 연구 참여 가족들에게 신앙은 '가족의 중심'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신앙은 가족을 연합시키고 중심 가치관이며 삶 자체였다. 신앙이 가족의 삶의 중심인 점이 신앙 전수에 중요한 요인이었다.

둘째, 부모의 신앙적 양상이 세대에서 세대로 전수됨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 가족1은 2세대부터 신앙의 단절과 회복의 패턴이 나타났고 연구 참여 가족2은 신앙의 방향기가 있지만 지속해 오는 패턴이 나타났다. 참여 가족들의 1세대들이 신앙을 시작하였으나 2세대들은 여러 상황에 의해 신앙생활을 그만두거나 소홀히 하는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장년기나 노년기쯤에야 신앙에 정착할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연구 참여 가족1에서는 4대 기독교 가족이지만 부계의 2세대 부모가 3세대 부의 성장기에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 3세대 부에게 성장기에 신앙적 영향을 주지 못했다. 3세대 부는 1세대와 외가 친척들의 영향으로 신앙적인 분위기에서 성장하였으나 2세대 부모의 직접적, 적극적인 신앙적 영향을 제공 받지 못해서인지 청소년기, 청년기에는 신앙과 단절하고 장년기인 현재도 신앙에 확신이 부족하다. 4세대 딸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였으나 3세대 부모의 영향과 성적 저하에 대한 좌절로 중고등학교 시절 하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 3세대 모가 신앙의 버팀목이 되어 주어 회복하였다. 연구 참여 가족2에서는 3세대 모계가 4대 기독교 가족이며 2세대 부가 결혼 후에 직업적으로 방황하며 신앙에 소홀히 한 면은 있으나 신앙을 떠나지는 않았고 이에 3세대 모는 모태신앙이다. 3세대 모는 출생부터 성장기까지, 그리고 목회자 배우자를 만나 결혼하고 지금까지 견고하게 신앙을 이어오고 있다. 4세대 첫째 딸은 중고등학교 시절 신앙적인 방향은 있었으나 하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고 목회자 가정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예배는 드려야 해 신앙을 완전히 등지지는

못하였다. 보웬의 가족체계이론에서는 가족이 관계를 통해 정서 과정뿐 아니라 가족의 역할, 태도, 가치관, 신념들이 다세대 전수됨을 언급하였다(김용태, 2019a; 김유숙, 2015). 본 연구에는 가족의 신앙생활 패턴도 세대 간 전수됨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연구 참여 가족들의 4세대 딸들의 신앙적 방향이 상대적으로 짧고 신앙 회복 후에는 전보다 신앙이 더 깊어졌다. 연구 참여 가족1의 4세대 딸의 말처럼 어린 시절의 신앙적 경험이 있었기에 성인이 되어서 신앙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했다. 연구 참여 가족2의 4세대 첫째 딸은 목회하는 부모의 신앙생활 모습을 보고 신앙을 회복하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연구 참여 가족1의 3세대 부가 순전한 믿음에 대해 갈망하나 인간적인 한계에 부딪혀 현재까지 신앙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유가 그에게 어린 시절의 신앙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는 교회에서 부모들에게 일찍부터 자녀에게 신앙을 접하게 하고 교육하여 이탈을 막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주장하는 것과 유사한 결과로 생각된다(김용태, 2021; 이종국, 2021).

넷째, 연구 참여 가족들은 성경적 가족의 질서대로 가족관계를 만들어 가고 있으며 이 점이 신앙 전수의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엨 5:22, 25, 6:1, 4). 참여 가족들의 3세대 모들은 집안의 가장이자 영적인 가장인 남편의 권위에 순종하였고 3세대 부들은 아내들을 존중하고 자신의 사역 파트너로 생각하거나 자신을 따라 준 것에 대해 고마워하였다. 또한 3세대 부모들은 2세대들의 강압적인 태도에 때로는 힘들어했으나 신앙적인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부모에게 순종하였다. 이들의 권위에 대한 순종은 4세대들에게 영향을 미쳐 사춘기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스스로 부모와 가족의 질서로 들어 올 수 있게 하는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한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 참여 가족1의 4세대 딸의 “부모님을 봤을 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너의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말씀들이 되게 잘 적용이 되고 있는 집안인 것 같아요.”라고 하고 연구 참여 가족2의 4세대 첫째 딸이 “신앙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해 보이는 지금의 엄마를 보며 딸은 희망을 품어요. 엄마, 아빠의 삶은 간증 같아요”라고 하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4세대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 ‘성경적 가족의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 3세대 부모의 순종이 선순환되어 4세대 자녀들의 부모에 대한 자발적 순종과 존경심을 갖게 하며 질서가 있는 가족을 만든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3세대 부모들이 자신들도 성장해 가면서 자녀들을 신앙적, 인간적으로 존중해 준 점이 4세대 자녀들과 큰 갈등 없이 가족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3세대 부모들은 권위로 자녀들에게 강요하거나 통제하기보다는 기다리고 자녀들의 입장을 존중하였다. 연구 참여 가족1의 3세대 부는 갈등을 빚는 것보다 본인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녀들의 탐탁지 않은 행동에 대해 말하지 않고 자녀들의 선택을 존중한다. 연구 참여 가족2의 3세대 모는 주일성수를 성실히 하지 않은 큰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아들의 삶에서 우선순위를 확인하는 정도만 묻고 신앙을 회복하길 기다린다. 3세대 부모가 처음부터 자녀들을 기다리고 존중해 주지 않았을 수 있고 이들에게도 시행착오가 있었을 수 있겠으나 현재 4세대 자녀들은 3세대 부모들이 자신들을 존중해 준 것처럼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의 삶을 보며 존경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4세대 자녀들은 자발적으로 신앙을 선택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기독교 상담에서는 자녀가 신앙적으로 방황하고 있는 부모들에게 자녀에 대한 인격적인 존중과 자율성을 부여할 수 있도록 부모상담 및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신앙의 세대 전수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친밀한 가족관계가 신앙 세대 전수에 중요함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다. 참여 가족들 모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가 좋았으며 대화가 많았다. 이들은 면접에서도 자신의 신앙 이야기나 깊은 속 얘기를 자연스럽게 하였다. 이러한 친밀한 부모-자녀 관계를 통해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부모의 신앙과 그에 대한 태도 등을 영향받은 것으로 보인다. 박광영(2013)은 신앙 전수는 부모가 중요하다고 하고 박상진(2020)은 올바른 신앙교육을 가로막는 큰 원인으로서 부모-자녀 간의 잘못된 대화방식과 대화 단절 등으로 부모와 자녀의 관계 갈등이라고 하는바 본 연구 결과와 연관된다. 이러한 결과를 기독교 상담에 적용해 보면, 기독교 가족상담에서 가족이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적 이야기를 대화의 주제로 삼아 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신앙적 대화'를 통해 신앙과 가족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연구 참여 가족들의 인간적인 특징들이 신앙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침을 일반 가계도와 영적-가계도를 함께 분석함으로써 확인할 수 있었다. 가족의 인간적 특징은 신앙 전수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방해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 가족1의 '가족 우선'은 신앙 전수의 요인이었으나 방해 요인도 되어 가족관계로 인해 신앙의 휴식기가 있었다. 연구 참여 가족2는 '올곧은 성품'이 신앙 생활할 때는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을 믿고 어려움에 맞서는가 하면 형제 중에는 신앙에 실망을 크게 하고 떠나기도 하였다. 기독교 상담에서 일반 가계도와 함께 영적-가계도 작업을 함으로써 기독교 가족의 구성원들에게 '가족의 인간적 특성이 신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자연스럽게, 직접적으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러한 작업을 통해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의 특성과 갈등을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특성이 신앙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회개하며 기독교 가족의 정체성과 가족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깨닫게 될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독교 가족에게 신앙이 삶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반 가계도 작업으로는 탐색할 수 없으나 기독교 상담 관점을 적용한 영적-가계도를 활용하여 알아볼 수 있었다. 또한 연구 참여 가족들에 영적-가계도 작업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영적-가계도 질문 중 '가족에게 신앙이란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시작과 끝에 질문하였다. 두 가족 모두 가족의 신앙 역사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가족 구성원 각자 또는 가족 전체에게 신앙의 의미가 깊게 스며들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참여 가족1은 가족에게 신앙은 가족을 연합시키고 좋은 가르침을 주는 것에서 가족의 삶 자체로 바뀌었고, 연구 참여 가족2에서는 가족에게 신앙은 가족을 연합하고 좋은 영향을 주는 것에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게 해 더욱 행복을 느끼게 하며 삶의 방향을 더욱 분명하게 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영적-가계도 작업 자체만으로도 가족의 신앙을 단단하게 할 수 있게 함을 알 수 있는바 또 하나의 공헌 점이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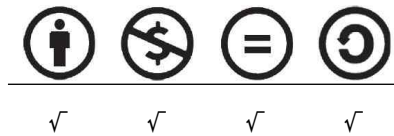
III. 닫는 글

본 연구는 기독교 신앙을 4대째 이어온 기독교 가족에 대해 영적-가계도 질문을 활용하여 신앙의 세대 전수 과정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독특하고 복잡한 4대 기독교 가족의 사례를 연구한 점이고, 둘째, 4대 기독교 가족들에게 질적 사례연구의 심층 면접을 통해 실제적이고 생생한 신앙의 세대 전수 과정의 자료를 얻었다는 점이다. 셋째, 기존 영적-가계도 질문의 수정, 보완 및 활용이 연구의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영적-가계도를 구속사적 관점으로 구성하여 가족의 신앙 역사를 과정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가족의 4대 신앙의 전수 과정에서의 긍정적 요소에 치우치지 않고 가족을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다. 연구 참여 가족들 모두는 영적-가계도 작업을 통해 자신들에게 당연시되었던 신앙이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는 점과 가족으로부터 흘러 내려오는 영적인 힘이 느껴진다고 하며 다시금 신앙 전수의 다짐과 신앙적 가족의 모델이 되고자 하는 소망이 커졌다. 넷째, 기독교 상담에서 일반 상담의 기법인 가계도를 활용하여 확장한 점이다.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만들어진 일반 상담이론과 기법을 기독교적 시

각으로 비판하여 적용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 참여 두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후속 연구에서는 더 많은 수의 연구 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연구 참여 두 가족 모두 4세대들이 딸들이었다. 후속 연구에서는 4세대에 아들이나 기혼 자녀들을 대상으로 연구하여 결과를 비교해 봄으로써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

- 논문 투고일: 2023년 09월 21일
- 논문 수정일: 2023년 11월 03일
- 게재 확정일: 2023년 11월 09일



【참고문헌】

- 권수영 (2010). 영성과 가족체계: 가계도의 목회적인 활용에 관한 연구. **신학논단**, 62, 31-55. <https://doi.org/10.17301/tf.2010.62..002>
- 김미애, 김영호 (2009). 가계도를 활용한 역기능 가족에 대한 가족치료 사례연구. **복지상담학연구**, 4(1), 79-99.
- 김승돈, 김용환 (2015). 영적 가계도 활용에 관한 연구. **영성과 사회복지**, 3(1), 51-79.
- 김영근 (2011). 보웬의 가족치료이론에 근거한 신학대학원생의 가족배경 분석 및 상담. **복음과 상담**, 16, 173-202. <https://doi.org/10.17841/jocag.2011.16..173>
- 김영덕 (2005). 가족치료를 위한 목회상담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용태 (2019a). **가족치료이론: 개념과 방법들**. 서울: 학지사.
- 김용태 (2019b). **초월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 김유숙 (2015). **가족치료: 이론과 실제 3판**. 서울: 학지사.
- 김유태 (2021). 전통화 모델을 활용한 교회학교 활성화에 대한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목회데이터연구소(2019). **목회데이터주간리포트(제1호)**. 서울:목회데이터연구소.
- 박광영 (2013). 세대 간 신앙 전수에 대한 성경적, 역사적 고찰과 교회 적용방안.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정희, 김유숙 (2009). 가족치료 임상에서 가계도 활용의 다양성 고찰. **한국가족치료 학회지**, 17(1), 31-55. <https://doi.org/10.21479/kaft.2009.17.1.31>
- 박정희, 최연실, 도은숙, 서신화, 안연주 (2007). 국내외 주요 학술지들에 나타난 가족치료 연구의 주제별 경향-2000년~2005년 발표된 논문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 15(1), 47-74. <https://doi.org/10.21479/kaft.2007.15.1.47>
- 손영란, 이윤주 (2020). 가계도 분석을 통한 졸업반 여자 대학생의 자아분화 과정 생애사 연구. **한국상담학회**, 5(1), 1-28. <https://doi.org/10.15703/kjccsp.5.1.202006.1>
- 심재임 (2013). 현용수의 가정신학이론에 비추어 본 기독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내용 실천과제에 대한 실태조사. 총신대학교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남옥, 문용갑, 김지혜 (2016). 체계론적 상담: 가계도 분석과 가족 세우기를 중심으로. **한국상담학회**, 1(1), 39-56. <https://doi.org/10.15703/kjccsp.1.1.201610.39>
- 이다미 (2013). 불안정 애착의 세대 간 전이를 경험한 어머니-자녀에 관한 사례연구: Bowen의 가족상담이론을 중심으로. **복음과 상담**, 21, 222-254. <https://doi.org/10.17841/jocag.2013.21..222>
- 이원석 (2020). 질적 연구방법으로서 사례연구의 특성. **대한질적연구학회**, 21(2), 85-91. <https://doi.org/10.22284/qr.2020.21.2.85>
- 이종국 (2021). 다음세대 신앙계승을 위한 3세대통합 교육목회 모델 연구. 장로회신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장희성 (2013). 목회상담에서 가계도 연구의 새 방향. **한국실천신학회**, 34, 191-216.
- 정정숙 (1994). **성경적 가정사역**. 서울: 베다니.
- 정정숙 (1983). **종교 개혁자들의 교육사상**. 서울: 총신대학교 출판부.
- 크로스웨이 ESV 스터디 바이블 편찬팀(2014). **ESV 스터디 바이블**. 서울: 부흥과 개혁사. (원저 2008년 출판).
- 홍지윤 (2003). 보웬의 가계도를 활용한 부부의 자아분화 향상 프로그램의 개발: 결혼 5년 이내 부부를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Dunn, A., & Dawes, S. (1999). Spiritual-focused genograms: Key to uncovering spiritual resources in African American families. *Journal of Multicultural Counseling and Development*, 27(4), 240-255. <https://doi.org/10.1002/j.2161-1912.1999.tb00338.x>
- Frame, M. W. (2000). The Spiritual genogram in family therapy.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6(2), 211-216. <https://doi.org/10.1111/j.1752-0606.2000.tb00290.x>
- Hardy, K, V., & Laszloffy, T. A. (1995). The cultural genogram: Key to training culturally competent family therapists. *Journal of Marital and Family Therapy*, 21, 227-237. <https://doi.org/10.1111/j.1752-0606.1995.tb00158.x>
- Hodge, D. R. (2001). Spiritual genograms: A generational approach to assessing spirituality. *The Journal of Contemporary Human Service* 82(1), 35-48. <https://doi.org/10.1606/1044-3894.2>

- McGoldrick, M. & Gerson, R. (1997). **가족분석가계도** (이영분, 김유숙 역, *Genograms in family assessment*). 서울: 홍익재. (원전 1985 출판).
- McGoldrick, M., Gerson, R., & Petry, S. (2011). **가계도 사정과 개입** (이영분, 김유숙, 정혜정, 최선령, 박주은 역, *Genograms: assessment and intervention*). 서울: 학지사. (원전 2008 출판).
- Rigazio-Digilio, S. A. (2017). **공동체 가계도** (강혜성 역, *Community genograms*). 서울: 박학사. (원전 2017 출판).
- Rita, D., Gerald, R. W., & Markie, L. C. (2019). **초점화된 가계도** (임춘희 역, *Focused genograms*). 서울: 학지사. (원전 2017 출판).
- Stake, R. E. (2000). **질적사례연구**. (홍용희, 노경주, 심종희 역, *Art of case study research*). 서울: 창지사. (원전 1995 출판).
- Sahin, Y. (2017). Using spiritual genograms in family therapies. *Spiritual Psychology and Counseling*, 3, 47-60. <https://dergipark.org.tr/en/pub/spiritualpc/issue/36824/419480>
- Willow, R. A., Tobin, D. J., & Toner, S. (2009). Assessment of the use of spiritual genograms in counselor education. *Counseling and Values*, 53(3), 214-223. <https://doi.org/10.1002/j.2161-007X.2009.tb00127.x>
- Yarhouse, M. A., & Sells, J. N. (2017). **기독교 가족치료 가족치료에 대한 광범위한 기독교적 평가**. (전요섭, 한숙자, 변영인, 김영희 역, *Family therapies*). 서울: 기독교문서선교회. (원전 2010 출판).
- 노형구 (2020.6.22.). 코로나 19, 가정이 '신앙 교육의 중심'이 될 기회. *기독일보*. <https://www.christiandaily.co.kr/news/91652#share>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 양한주 (2021.5.24.). 교회 예배 닮은 가정예배, 신앙 전수 가로막는다. *국민일보*. <https://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924192853>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 천보라 (2021.2.26.). 가정과 교회 하나로 연결...신앙 전수로 열매 맺어. *데일리 굿뉴스*.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1091_72에서 2022년 4월 16일 인출.

[Abstract]

A case study on the history of faith in fourth-generation Christian families: Based on spiritual genogram

Kim, Ji Hye* Hong, Kyung Wha** Kim, Myung Shi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transferring faith to the next generation in fourth-generation Christian families by using the spiritual genogram. To this end, qualitative case study was conducted with two fourth-generation Christian families living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n these fourth-generation Christian families the Christian faith is integral and central in their lives. Second, the faith and religious lifestyles of the previous generations are handed down to the next generation. Third, the religious wandering and backsliding of the fourth generation are relatively short and in the process their faith are deepened and strengthened. Fourth, family relationships are built based on biblical family order. Fifth, the third generation's respectful attitude toward the fourth-generation children encourages the voluntary and positive choice of their Christian faith. Sixth, the positive family dynamics and relationships have a positive influence on the families' religious life. Lastly, the analysis of spiritual genogram shows that the human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ting families directly affect their religious life. This study is meaningful and unique in that it studies cases of fourth-generation Christian families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obtains raw data on the generation transfer process of faith. In addition, it produces and uses spiritual genogram in the analysis of the case studies.

Key words: fourth-generation Christian family, transmission of faith to next generation, case study, spiritual genogram, Christian counseling

* Torch Trinity Graduatio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Doctoral Student

** Torch Trinity Graduatio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 Professor

*** Torch Trinity Graduatio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Counseling
/ Doctoral Student